

주거침입 범죄 증가 ‘불안한 시민들’

광주·전남 최근 5년간 2,660건·3,207명 달미 1인가구 점점 늘어 여성 표적 성범죄 대책 절실

광주·전남지역의 주거침입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심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35% 가량 폭증했고, 관련범죄로 수사기관에 불잡힌 범인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범죄 노출이 쉬운 여성 성범죄에 대해 치안 강화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등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전남서 총 2,660건의 주거침입범죄가 발생해 총 3,207명의 범인이 검거됐다.

광주는 2014년 180건·2015년 179건·2016년 197건·2017년 209건·지난해 241건으로 5년 동안 33.8% 증가했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 역시 2014년 224명·2015년 223명·2016년 231명·2017년 277명·지난해 286명으로 27.6% 늘었다.

전남은 2014년 292건·2015년 300건·2016년 346건·2017년 322건·지난해 394건으로 같은 기간 35% 증가했으며 검거인원도 2014년 331명·2015년 345명·2016년 425명·2017년 393명·지난해 462명으로 5년새 40% 폭증했다.

전국적으로 총 4만 2,286건의 주거침입범죄가 발생하고, 5만 2,597명이 검거

됐다. 특히 광주·전남서 주거침입범죄 가운데 성범죄로 이어진 건수도 이 기간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3건·2015년 19건·2016년 29건·2017년 29건·지난해 25건 등 모두 125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께 20대

여성 홀로 거주하는 광주 서구 모 원룸에 만취한 20대 남성이 창문을 열고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9일에도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현관 도어락을 만지고, 뱀새를 맡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최근 급증하면서 주거침입 범죄가 쉬워지고, 여성 홀로 원룸에 거주하는 비율까지 높아져 성

범죄의 주된 타깃이 된다고 분석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에서 2017년 562만으로 17년 동안 2.5배인 1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1인가구 60% 이상이 여성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범죄는 성범죄 등 대부분 특정 목적을 두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강력범죄까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범죄 노출이 쉬운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선 경찰의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기자



저염김치 만들기 체험

광주시 동구는 17일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영·유아 부모 30가구를 대상으로 만능질한 예방교육과 저염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동구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 무죄 법원 “제출 증거 인정 안돼” 검찰 항소 기각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에게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B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선거공보물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대기오염 수치 조작 기업 임직원 ‘집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봉조)은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46)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직원 3명에게 900만~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

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이모(50)팀장 등 9명에게는 7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무경찰 감축’ 올해 광주 2곳 부대 통폐합

정부의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광주의 2곳 의경부대가 다른 부대와 통폐합된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 동부경찰서 방법순찰대 등 광주의 2개 의경 상설부대가 폐지된다.

남부 방순대는 오는 22일 폐지되고, 동부 방순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 개최 이후인 12월 17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의경 상설부대 통폐합은 국정과제인 ‘의경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의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나머지 3곳 의경 상설부대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한다. /고광민 기자

“학원 교습 허용 시간 단축해야”

학벌없는시민사회 조례 변경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일휴무제 공문화에 나선 가운데 광주에서도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교습 시간으로 제한했다.

애초에는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였으나 2010년 정부 정책에 따라 교습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초·중·고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로 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일찍 학교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장시간 교습으로 내몰릴 소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교습 개시 시각(오전 5시)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일상적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운영하는 학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조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4만 5,000원에서 지난해 26만 2,000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증가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발달상태 등을 고려해 교습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9년간 유지한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왜곡 방송 후원 중단해야” 5월 단체 성명서 발표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 왜곡 유튜브 방송’을 후원 중인 공공기관·기업들에게 중단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기관들과 기업들의 광고가 5·18 관련 왜곡 및 가짜뉴스를 주도적으로 생산·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서 정부기관·공기업 광고가 방송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5·18 왜곡 세력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유모차를 잡을 수도 있지”

○ 아이부모가 유모차를 잡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59·여)는 복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장모씨(38)가 아이의 유모차를 잡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장씨의 머리를 잡은 것.

○ 경찰에서 박씨는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유모차를 잡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장씨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다”며 선처를 호소.

/이나라 기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